

## 2024년 03월 27일(수요일), 17:00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전문)

### 참석

- 회사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
- 위원 : 강문식위원장, 박병희위원, 김석위원, 박성주위원, 조애숙위원, 나민수위원, 김동희위원, 박소정위원, 박경숙위원

경영심의센터장 :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위촉되신 세 분의 위원님을 소개하고 간단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 저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여수MBC 시청자 위원으로 선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견이 아주 높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게 돼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고 제 시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미력하지만 여수 MBC 시청자 위원회가 명품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13년 전에 여수MBC 시청자 위원을 활동을 했었는데요. 왠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시 시청자 위원에 참여를 요청받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로컬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수MBC가 지역의 언론으로서 또 중앙언론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이 전남 동부지역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MBC의 역할을 하는데 응원을 좀 하고 또 때로는 이거는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 위원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맨손으로 오고 오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좀 시기는 지났지만 멋진 시가 있는 달력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 : 저는 상대 마을이라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마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참여하거나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좋은 공동체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들이 언론에 좀 소개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자체로 마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좋은 공동체를 좀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또 공동체에 굉장히 또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잘 다뤄 주시고 이제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돼서 기쁘네요. 반갑습니다.

위원장 : 지금부터 2024년 3월 여수MBC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봄 정치가 짙어지는 3월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방금 소개받으신 우리 새로운 세 분의 위촉받은 우리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여수MBC 이호인 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이사 :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틀림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 전해 주시고 보고 느끼신 것 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좋은 피드백이 돼서 저희가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이번에는 주요 부서별로 전화 회기 업무 설명과 다음 회기 계획 들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복현 콘텐츠 센터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콘텐츠센터장 : 네 콘텐츠센터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주요 추진 업무하고 4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양하게 지금 선거방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6일, 7일, 12일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를 3회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수 을 본선 후보자 토론회가 지금 5시 10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저녁 7시 5분까지 115분 동안 방송될 예정이고요. 유튜브 여수MBC 뉴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록 작성 시점에 예정 상황에서 조금 지금 오류가 있는데요. 3월 26일 어제 거하고 내일 거는 지금 후보자들 참여가 성사 되지 않아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선 토론은 오늘하고 다음 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식토론회가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에는 고흥 보성 강진 장흥 쪽에 여기 선거구는 이제 목포MBC 쪽에서 중계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두 시부터 목포 방송 그대로 수중계해서 동시에 지역민들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수중계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3일에는 저희 순천 갑 선관위

토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도 동시에 라이브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쪽 해오고 있는 섬마을식탁 고흥 해조류 편이 마지막 편으로 해서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15분 편성으로 방송될 예정이고요. 작년부터 고흥편을 세 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세 편을 묶어서 종합편으로 31일 일요일 아침에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요일날 오전 시간에 저희 여수MBC 스페셜 시간에 편성 띠가 있는데요. 시간 띠를 이용해서 섬 여수 작년에 특집했던 부분도 앙코르로 연속해서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MBC 공동 프로그램 및 캠페인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에 살아요'라는 공동 지역 16 계열사 공동기획품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SB 시간에 3~4분 정도에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월에는 저희 고흥 지역 편으로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전국에 송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문화유산 알리기 연속 캠페인도 아이디 캠페인도 3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클라쓰 시즌3도 계속해서 녹화 및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여수 녹테마레, 강진청작축제 관련해서 녹화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강진청작축제 같은 경우는 여수와 목포MBC가 공동제작 형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수 섬 관련해서 거문도를 필두로 한 삼산면 권역에 대한 이 부작 섬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연말 중에서 10~12월 정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절차에 들어갔고요. 좋은 작품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 재난방송의 역할도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방통위에서 제시한 표준 매뉴얼에 맞게끔 저희 여수MBC 재난방송 종합매뉴얼도 개정해서 배포하고 각 센터 및 TV, 라디오 주부조에 지금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 4월 계획 간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일부 코너 등 개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선거가 끝나면 '어바웃우리동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새단장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시청자 들이 참여해서 저희 프로그램 티비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시청자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 1~2 회 정도 기획을 해서 방송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부분도 '라디오 전망대'의 월간 코너라든가 음악식당의 코너 개편 등을 좀 변화를 모색하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트로트 클라쓰 4월 예정 녹화 일정 들입니다. 일단 4월 24일에는 순천 낙안읍성에서 관악 퓨전 클라쓰라고 해서 낙안 읍성에서 녹화 및 방송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다음 주 4월 8일 9일에는 요트 경기장 및 동동다리 일원에서 버스킹 버전으로 2부작 정도 제작을 하고 다음날은 공개

홀에서 팀별 미션 형식으로 해서 3부작 정도 제작해서 방송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그 방송문화진흥회나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라디오 다큐로 해서 제작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난임 부부 프로젝트 15% 이야기’라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가 15% 정도는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어떤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지 꼼꼼히 좀 인터뷰하고 구성을 해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으로도 라디오 특집도 시청자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4월10일 총선 관련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토론 방송이 원활하게 잘 돼야하는데 총선 주자들이 거절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보도센터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이나 여수나 민주당 후보들이 불참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민주당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 후보로 되면 토론회 안 나가도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뉴스에서, 토론회는 분명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참하는 지원자들의 태도에 대해 지적도 했는데요. 토론회에 안 나오고 본인들이 된다고 해서 과연 유권자에게 자기의 어떤 공약이나 생각들을 정확히 전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을 때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보도센터는 일단 뉴스로는 선거구별로 4월 총선 출마자 등록을 마쳐서 출마자 검증하는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후보별 공약을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공약을 가지고 여러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비교를 하는 뉴스로도 좀 포맷을 바꿔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3지대에서 지금 알고 있다시피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도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무소속 후보들도 변수로 작용하는 선거구가 있어서 여기도 좀 많이 알리고 있고요. 알다시피 전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한 60년 가까이서 여성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도 좀 이제 권향엽 후보가 지금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에 지금 출마했는데, 이런 내용도 제작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동부권의 보수정당 후보나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후보 외에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후보들의 면면도 저희들이 뉴스로 제작해서 냈습니다. 전남 의대 유치 순천대가 이제 저희들이 알다시피 순천대가 유치하는지 목포대로

유치하는지 아니면 같이 가냐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저희들은 순천대 유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마스터플랜이 최근에 좀 시동을 건 것 같아서 기사화했습니다.

순천의 기해발전특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포스코퓨처엠 양극제 공장이 들어서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도 제작했으며. 농어촌에서 지금 고흥에서 석 달 살기, 이제 농어촌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해서 농어촌에 계속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는지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총선 후보자 지지율 이 차 여론조사가 오늘 있습니다. 순천 갑과 을입니다. 저희 관할에 5개 선거구가 있는데, 좀 경합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순천 갑하고 을을 오늘 여론조사 공표를 합니다.

4월 달 보겠습니다. 4월 달은 어 4월 10일 날 총선 개표방송이 있는데요. 개표방송은 저희들이 일곱 시 정도부터 돌아가는데요. 서울에서 방송하다가 저희들이 끊고 한 10분 단위로 서울방송 하다가 이제 우리 로컬 방송을 들어가서 저희 선거구를 중점적으로 개표현황을 보도를 할 건데 광주·목포·여수가 중간에 한 뉴스 데스크 시간 정도 한 8시부터 9시 사이에 한 번 정도 광주·목포·여수가 통합해서 생중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주·목포·여수 전체적인 판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후보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4월 3일 날은 법정토론회입니다. 순천 갑 법정토론회 하나 남아 있고요. 중요한 게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이 4월 1일 날 재개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1000만 명 가까이 정원박람회장 들어갔는데 새롭게 조금 꾸며서 오늘도 이제 미리 보는 정원박람회장 해가지고 뉴스로도 나가는데 재개장해서 새롭게 순천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전국 뉴스를 좀 만들어서 이슈화 좀 시킬 예정입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예정이고요. 지역 축제가 예년과 좀 달라진 것 이런 내용도 하고 지역 도로망이 지금 빠르게 좀 확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지도가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SOC 사업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요. 여순사건 조사위 공백이 지금 4개월째인데, 계속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요 내용도 계속 좀 보도하겠습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이순신 탄생 479주기 관내 이순신 장군 유적이 많은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회 파트 뉴스로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 당일날 4월 10일 날 끝난 후 당선자를 모시고 당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당선자에게 듣는 토론회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사업센터장 : 방송사업센터장입니다. 3월달 주요 추진업무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여수아카데미를 3월 21일 이순신 도서관에서 권정윤 박사 초청해서 '트렌드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3월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공모사업 중에 버스킹 사업을 저희 여수MBC가 수주해서 낭만버스킹, 청춘버스킹 두 개 사업을 올해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4월 주요 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광양 LF스퀘어에서 영화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파묘가 지금 1000만 명을 돌파해서 올해 첫 1000만 돌파 영화로 아직 상영 중입니다. 이후의 대작은 아마 4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도시4' 마동석 나오는 한국 영화로는 이슈가 될 걸로 예상하고 영화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아카데미도 김상욱 물리학 교수를 초청해서 4월 아카데미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섬진과 꽃길 마라톤 대회를 4월 14일 날 광양 둔치에서 올해는 여수 MBC가 주관으로 해서 MBC경남과 영호남 화합 마라톤 대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수 MBC 주관으로 4월 14일 삼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도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반기 첫 뮤지컬 공연인데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썸데이라는 공연을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총 8회 소극장 공연으로 예율마루 소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기획 여러분의 시청자 경험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들의 소감과 제안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박병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병희위원 : 네. 반갑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역이 공단이 두 개나 있고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다른 지역을 위한 이 일종의 희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세 수입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 가지고 보도를 좀 해 주시면 전남동부쪽에 세원 확보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부두에 오고 가는 컨테이너당 얼마씩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해당 자치단체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건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몫을 찾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 방송에서도 좀 같이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순천대 관련해서는 제가 순천대의대 추진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전남 한 군데를 정해놓고 오면 의대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정원 2000명을 한덕수 총리께서 발표하면서 전남의 경우는 더 신설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내년도에는 신설이 불가능하고 2026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는 목포대와 순천대 간에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는 셈인데 전라남도는 여전히 이전에 제시했던 것처럼 양쪽에다가 부속병원을 만든다고 하는 게 공동의대였는데 지금은 공동의대에서는 약간 한발 물러나서 두 개 대학을 통합해 가지고 하면 두 개 대학이 다 받는 셈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냐 약간 이런 태도를 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대나 목포대도 마찬가지로 통합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고 언급이 없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학교 차원에서는 어 우리는 좀 따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그때부터 조금 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의대 유치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민단체, 순천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도시들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주면 순천대학교 입장에서 조금 더 좋아지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도에서는 지금 순천대학하고 목포대학하고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은 그렇게 한다지만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건 3차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차 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 대학병원 하나 하는데 보게 되면 거의 1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재원마련에 있어서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통합해서 하는 부분과 별개로 3차 병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3차 병원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동부권에 보게 되면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한 60프로가 살고 있고 지금 서부권 보게 되면은 나주에서 무안 목포까지 20분에서 거의 40분이면 광주에 있는 3차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동부권으로 오게 되면 한 시간 반에서 거의 뭐 1시간 40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순천대도 명확한 어떤 목표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강하게 어필할 부분들은 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박병희위원 : 위원장님 말씀이 여러모로 우리 대학이 생각하는 방향도 사실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특히, 몇 년 사이에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선정된 글로컬 대학도 도를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국장급 공무원이 우리 대학에 파견되어 와 있으며 또 순천시에도 파견되어 있고 이제 그런 정도로 도의 영향을 조금 더 받게 되는 구조가 돼서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따로 내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 다음으로 김석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위원 : 그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대 의대 관련해서 학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글로컬대학 예산이 도를 거쳐서 대학에 온다는 게 조세 절차상 이게 과연 맞는 건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 요구들이 좀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 정보 공개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연대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고 여순 사건이랄지 공교롭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도 막혀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제가 저는 지금 섬 관련된 여수 MBC 방송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제 아버지가 섬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섬 관련된 방송을 한 3부작으로 집약해 가지고 영화처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까운 경남MBC에서는 김장하 선생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계속 OTT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섬이 엄청난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무의식적으로 OTT 따라가다가 방송인 전현무가 나오는 여수먹거리 프로그램 시청했습니다. 보면서 제가 태어난 여수지만 정말 이런 게 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MBC가 '로컬퍼스트'라고 하는 아젠다를 잘 묶어내면 본방송 아니더라도 유튜브,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로컬퍼스트를 한쪽에서는 문화와 먹거리나 막 이런 쪽이 있고 또 교수님 말씀하셨던 세원 발굴이나 뭐 행정개편이나 이런 쪽이 또 있겠고 또 하나 의료 쪽에 관련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3차 병원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 또 의대 설립에 대한 요구도 있어요. 이걸 뭔가 여수 MBC가 진행할 로컬퍼스트 꼭지로 묶어가지고 다양하게 여수MBC 그러면 딱 머릿속에 로컬퍼스트 하고 좀 생각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잠시 했고 저는 보도 관련해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특히 여순사건 역사 왜곡 비상대책위가 출범을 했



는데 여수 MBC에 와 주서 가지고 넘치게 좀 보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위원 :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처음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달 회의했던 내용이 전부 다 올라왔더라고요.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작년에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 주셨는데 다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제가 부탁드렸던 뉴스레터에 서구권 뉴스 주요 뉴스를 반영해서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애숙위원 : 저는 여수MBC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변에 물어봅니다. 여수MBC에 바라는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또 잘한 부분들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MBC에 너무 고맙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MBC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지역의 소식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고맙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민주당 공천 받거나 이런 분들이 경선 때도 그렇고 공천 받은 후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거나 너무 오만한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없애게 하려면 우리 유권자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인구도 그렇고 필수 의료 확충 필요한 산단도 있고 동부권에 유치해야 이유들은 서부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권에서 전남대 분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부터 이렇게 대학하고 힘을 합쳐 의대 유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박람회장 인수할 때만 해도 곧 뭔가 굉장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또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 어디까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이 굉장히 큰 현황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민수 위원 : 지난 2월 22일 김단비 기자께서 취재를 좀 하셨는데요. 이제 여기 김동희 전무님도 계시긴 하지만 울산산단에 이제 포스코퓨처엠에서 공장 착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희 LG화학에서도 이렇게 양극제의 도전재로 CNP라는 것을 생산 준비하고 있으며 라인까지 증설을 해서 업종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 석유화학이나 철강 산업의 변화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다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석유화학 시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2월 지금 3월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2월까지 실적이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 좀 성수기로 좀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돼 상반기 중에 흑자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의 원가 안정을 위해 공동구매라든지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구조적인 조정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LG화학 SM공장이 폐쇄에 들어갑니다. 수입한 제품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를 하고요. 폐쇄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랄지 시설들 설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분들은 전부 다 타 공장으로 전원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시설을 매각을 하고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CNP와 같은 어떤 신사업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동희위원 : 4월 14일 MBC에서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대회가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광양시하고 하동군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이 행사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MBC가 이렇게 주최를 해줘서 관심을 더 불러일으켜서 상생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 아닌가 이런 부분은 계속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상반기 기획공연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이탈이 되고 인구 감소도 많이 되는데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고품격 문화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영향력 있는 여수MBC에서 이런 서울 대학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걸 많이 좀 유치를 해서 이 지역에 해 주신다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확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 : 우선 여수MBC 경영이 잘 어려움이 없나 이게 궁금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경영이 힘들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가서 또 아부를 해야지 광고도 들어보고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만 당당하게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언론은 보도가 꽃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도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예를 들면 철가루 덮친 마을 분진 피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처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 후속 보도까지 좀 나가면 언론에 대해서 좀 신뢰를 더하지 않을까. 그냥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까지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그다음에 선거 때는 유권자들은 없고 후보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좀 내는 보도나 기획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이 유권자들은 이 지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 대표 등 그들의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있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담아내는, 그래서 선거 때 후보자만 있고 유권자가 없는 이런 선거 방송이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본인들이 당선됐다고 생각하니까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선권이지만 당선되었을 때 유권자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 문제는 보면 안타깝게도 순천대 의대 유치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는 그냥 서명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 순천대의 의대가 유치를 해야 하는가 이 순천대의 의대가 유치됨으로써 내가 사는 이 지역민으로서는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뭐가 있을 것인가? 이제 요런 것들이 좀 있어야 지역사회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형식적인 유치가 아니라 정말 지금 정성의 마음으로 유치에 참여를 할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잖아요. 이 파업으로 인해서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는 병원들 또 이게 의료 문제 공공의료가 됐든 뭐가 됐든 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대 유치 이야기가 들어가면 훨씬 더 지역사회 바람을 함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어 집니다. 그리고 한 번의 보도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수MBC는 이 전남 지역에서 로컬 방송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데 그러면 거기에 지역민들의 목소

리를 어떻게 잘 담아내야 로컬 방송으로서의 생명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여순 사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다시 한 번 반란의 도시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여순 사건을 이념을 떠나서 어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생명과 평화의 입장에서라도 이 여순을 역사를 올바르게 잘 규명해 내는 일이 중요하기에 여수MBC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인 기획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 : 저는 오늘 처음 참여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제가 속하는 곳만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어서 공부가 되었고 다음번에는 열심히 공부해와서 저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면 지금 4월 10일 총선 관련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불참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부분에서 지금 현재 너무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의대 유치 부분에 대해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한 현실과 환경에 대한 통계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정치적인 논리로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좀 그 지역 잘 통계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사측에서 좀 덧붙일 얘기나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영심의센터장 :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반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차기 시청 자위원회 회의 자료에 담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보도센터장 :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왜 의대 유치가 필요한지'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기획으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왜 우리 지역에 의대가 유치가 정말 필요한가 시청자들이 이걸 보고 우리지역에 의대를 유치해야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바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슈 현장 다시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어떤 사회 비리나 아니면 개선의 문제점을 끝까지 파고드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보도를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요. 이러한 ‘이슈 현장 다시 간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 평소에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지만 새롭게 위원님들이 오셔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이 느끼는 환경이 공기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면 귀한 걸 모르잖아요. 지금 정치 상황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자들과 언론사가 저희가 같이 맞닿아서 위에 서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둔감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로 받아들여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따끔하게 환기시켜 준 것 같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 사측으로부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님들이 소중한 의견 잘 반영해서 좋은 방송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